

# 신석정 시의 유토피아 의식 연구

김 경 복\*

차 례

- |                            |                     |
|----------------------------|---------------------|
| 1. 문제제기                    | 2-2. 모성 지향의식과 생태 인식 |
| 2. 신석정 시의 유토피아 의식          | 3. 결 론              |
| 2-1. 역사현실의 비판의식으로서 반대 상(像) |                     |

## 1. 문제제기

신석정은 1930년대 시문학파의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시인이다. 이러한 신석정에 대한 최초의 평가는 김기림이 「1933년 시단 회고란」에서 “현대문명의 잡담(雜談)을 피한 곳에 한 개의 유토피아를 음모하는 목가시인 신석정”<sup>1)</sup>이라는 말 이후 서정주의 “도덕적 자연주의”<sup>2)</sup>, “처음부터 끝까지 자연과 친근하여 그것을 동경 師事하는 가운데서 시상을 발전시키고 다듬어온 자연시인”<sup>3)</sup>이라는 백철의 평을 거쳐 전원시인, 목가시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이들의 평은 주로 1939년 발간된 『꽃불』과 1947년에 발간된 『슬픈 목가』, 즉 초기시의 특성에 치

---

\* 부산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강사

1) 김기림, 『시론』(백양당, 1947), p.86.

2) 서정주, 「신석정과 그의 시」 『한국의 현대시』(일지사, 1965), p.183.

3) 백철, 『한국신문학발달사』(박영사, 1975), p.223.

중태 있다.

그런데 최근의 연구 경향은 신석정 시의 중후기시[『빙하』(1956), 『산의 서곡』(1967), 『대바람 소리』(1970)]를 주목하여 신석정 시의 또 다른 면모로서 “서정시인으로 백의종군하듯 대담하게 현실 참여를 시도한 시인”<sup>4)</sup>이라는 평을 내리거나 더 나아가 “저항시인”<sup>5)</sup>이라는 칭호를 붙이기도 한다. 이는 해방을 전후로 하여 신석정 시의 내용성에 큰 변화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평가다. 즉 현실도피적 성향의 시인으로서 목가적 전원시인이 후기시로 갈수록 현실참여적 저항시인으로 바뀌었다는 논리가 주종이다.

이런 두 가지 신석정 논의는 다 부분적 진실성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 번째 접근방식은 신석정 시세계의 주된 특징으로서 잡을 수 있는 전원지향성을 그의 초기시와 후기시의 연속적 특징으로 보고 주로 전기시에 나타난 양상을 중심으로 그의 시적 특징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이는 주제적 접근으로서 한 작가의 특이점을 강조하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이 비평은 분명 신석정의 작품 중 상당수 현실비판적 작품을 의미하는 현실적 한계를 가진다. 이에 비해 두 번째 방식은 신석정 작품의 전체를 바라보려고 하는 측면에서 보다 균형적 시각을 갖춘 연구 방법이다.<sup>6)</sup> 그러나 이 접근 태도는 신석정의 변화과정을 그의 전기적 사실에 너무 의거하여 작품의 내적 연속성을 밝혀내지 못하고 도식적 결론에 도달하는 경향이 있다. 즉, 왜 초기에 현실도피적 성향이었던가 현실비판적 시세계로 전향돼 갔는지를 역사적 변화로만 설명할 뿐 그의 작품적 특성으로 충분히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볼 때 신석정 시의 올바른 접근은 그의 전 시를 아우르면서 초기시와 후기시를 관통하는 어떤 정신과 미학적 특징을 발견하는 것이다. 나는 그러한 방법으로 신석정 시에 나타나는 ‘유토피아 의식’의 추적을 들고 싶다. 한 시인에게 각인된 시적 세계관이나 의식은 약간의 변화를 한다고 하여도 그 본질적 측면에서 지속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의 중요 자질로서 유토피아 의식의 추적은 이 경우 합당한 방법적 틀이라 생각한다. 신석정은 예로부터 이

4) 허소라, 「신석정 연구」 『한국언어문학』(형설출판사, 1976), p.49.

5) 오택근, 「신석정론」 《시문학》 117호(1981. 4)

6) 윤여탁이 『신석정』(전국대출판부, 2000)이라는 평전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잘 말해주고 있다.

상향을 추구하는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왔다. 그러나 신석정의 이러한 이상향 지향에 대하여 대부분의 학자들은 낭만적 차원의 접근과 분석으로 일관함으로써 신석정이 정작 강조해마지 않던 유토피아 추구의 의미가 축소돼 있다. 따라서 이 글은 그의 시에 나타나는 유토피아 의식의 여러 특이성을 살펴봄으로써 그의 시적 세계의 전체적 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 2. 신석정 시의 유토피아 의식

### 2-1. 역사현실의 비판의식으로서 반대 상(像)

신석정 시의 의미를 유토피아 의식의 관점에서 살펴보려고 할 때 이는 신석정 시의 주요 특징으로 알려진 목가적, 낭만적 특징과 멀리 떨어진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목가적 시가 그리고 있는 전원적 심상이라는 것이 대개가 지나가 버린 ‘황금시대’를 그리며 양치기들의 사랑과 생활을 읊고 있기 때문이다.<sup>7)</sup> 그런 점에서 신석정 시의 출발은 역시 『촛불』에 실려 있는 이상향 지향의 시로부터 살펴봐야 옳다.

어머니  
당신은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깊은 삼림지대를 끼고 돌면  
고요한 호수에 흰 물새 날고  
좁은 들길에 野薔薇 열매 붉어  
멀리 노루새끼 마음놓고 뛰어 다니는  
아무도 살지 않는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그 나라에 가실 때에는 부디 잊지 마세요.  
나와 같이 그 나라에 가서 비둘기를 키웁시다

-「그 먼 나라를 알으십니까」 부분

7) 이진청, 『한국전원시 연구』(문학세계사, 1986), p.27.

신석정 시인을 유명하게 만든 목가적 전원시다. 그런데 이 시에 나타나는 ‘먼 나라’는 자유와 평화,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약속하는 땅, 분명 역사적 현실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상향의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상향에 대해 해석은 다양하다. 정태용은 “이 시에 나타난 자연은 중세기적인 무한과 깊고 가녀린 신비를 그리워했던 서구 낭만시가 이식된 것”<sup>8)</sup>이라 설명하고 있고 신석정의 동양적 사상에 대한 지식을 염두에 둔 논자들은 도연명의 귀거래사에서 유래되는 귀의처<sup>9)</sup> 내지 동양적 자연주의라 설명하고 있다. 이러한 설명들은 어떤 부분에서는 다 옳다.

그러나 정작 이 시에서 우리가 볼 점은 왜 ‘먼 나라’로 제시된 공간에 시적 화자는 가고자 하며 그 때에 어머니란 존재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는 문제다. 이 점에 대한 설명은 신석정 시인의 산문에 바탕을 둔 해석이 주조를 이룬다. 즉 “숨막히는 현실을 호흡하게 될 때, 호흡함으로써 비로소 비극을 멀리 피하기 위하여, 애써 현실의 세계에서는 아주 아스므라한 먼 나라로 내 자신을 이끌고 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로소 거기서 나의 작은 安息所를 찾아간 것이 나의 ‘어머니’, 자연의 품속이었습니다.(『슬픈 牧歌』의 발문)”라는 고백을 통해 현실도피적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 산문은 시적 화자로 분한 신석정이 왜 먼 나라를 지향하게 되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부분이기는 하나 시인의 말에 따라 연구자마저 이러한 말을 따라 ‘먼 나라’로 형상화된 공간을 도피의 공간으로 해석하는 것은 선부론 판단이다.

즉 이 시는 도피의 시가 아니다. 바로 현실의 부정성을 직접 표출할 수 없는 파시즘 압박의 시대에 그것을 유연하게 반대로 드러내는 풍요적 서정시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유토피아 의식을 가진 시로 역사적 현실 인식의 끝에 발생하는 의식적 작품이다. 여기서 유토피아 의식이란 현실을 은폐하는 도피의식이 아니라 “행동의 단계로 이행하면서부터 기존의 질서를 부분적으로나 혹은 전적으로 파괴해버리는 ‘현실초월적’ 방향설정을 뜻한다.”<sup>10)</sup> 달리 말하면 유토피아 의식은 “인류정신사에서 인류공동체를 통해서만 실현되는 올바름에

8) 정태용, 「신석정론」 《현대문학》(1967. 3), p.263.

9) 이진청, 앞의 책, p.154.

10) 칼 만하임(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청학출판사, 1991), p.263.

의 갈망<sup>11)</sup>인 셈이며 유토피아 사상가는 현실에 대한 분석과 비판을 통해 특정한 사회와 국가에 대한 구체적 상(像)을 제시해준다.<sup>12)</sup> 즉 유토피아적 충동이라는 것은 현실비판이라는 부정의 원리와 이상세계의 창조라는 긍정의 원리, 말하자면 <희망의 원리>가 됨을 가리킨다.<sup>13)</sup> 그 점에서 유토피아 의식은 현실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이 ‘먼 나라’로 구체화된 이상향은 그런 연유로 신석정이 당대의 현실에 대해 결핍된 사회를 지양하기 위한 의식적 투사로 보아야 한다. 그것은 신석정 시가 초기부터 역사적 현실에 대응한 작품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이미 그는 1925년 조선일보에 다음과 같은 시를 발표함으로써 당대의 현실에 대한 역사의식을 보여주고 있다. “떠납니다! 떠납니다! 이 땅을 뒤로 두고/떠나갑니다/오— 너도 눈이 있거든/보아라! 달밤에 날아다니는/반딧불 보다도 그 보다도 더/힘이 없는 이 나라 사람들을/엿지 벗삼고서/살 수 있겠는가를—//거칠한 이 땅에 고혼 꽃피고/새 노래하는 때가 오고/살고도 살은 사람의 무리가/살게 되는 그 때엔/다시 돌아 오겠습니다만은—”(「이국자 노래」) 이 시는 국권상실기의 우리 민족의 실상을 인식하고 고발하고 있다. 동양적식 회사를 비롯한 일제의 수탈정책에 참담한 생활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조선 민족의 내면의식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신석정이 당대의 역사 현실에 도피적 자세로 일관하였다고만 할 수 없는 것이다.

시는 하나의 함축이다. 그 점에서 표면에 나타난 사실적 진실 여부를 가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포적 사실에 보편적 진실성이 들어있나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볼 때 신석정의 ‘먼 나라’는 바로 일제 치하 우리민족이 갈망하는 이상적 공간으로 작용하며 그것을 개인적 차원의 심상으로 구축해 놓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특히 유토피아적 사유라는 것이 질서와 설계와 희망이라는 세 가지 원소들을 결합하여 모순된 현실세계와는 다른 보다 나은 세계에 대한 기능적인 구상을 수반하기 마련<sup>14)</sup>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신석정의 시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으로서 반대상(反對像)의 의미를 지닌

11) 마르틴 부버(남정길 역), 『유토피아 사회주의』(현대사상사, 1993), p.38.

12) 김영환,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담구당, 1988), p.15.

13) 인철규, 『왜 유토피아인가』(민음사, 1994), p.29.

14) 정지창, 『유토피아·유토피스틱스·리얼리즘』 『유토피아』(문예미학사, 2000), p.3.

다.

이는 그의 다른 시 한 편을 살펴볼 때 더욱 확실하다.

어머니  
만일 나에게 날개가 돋았다면

산새새끼 포르르 포르르 멀리 날아가듯  
찬란히 피는 밤하늘의 별발을 찾아가서  
나는 園丁이 되었리다 별발을 지키는……

<중략>

그런데 어머니  
어찌하여 나에게서는 날개가 없을까요?

-「날개가 돋았다면」부분

이 시 속에서 나오는 '밤하늘의 별발' 역시 '먼 나라'가 가지는 의미와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이번 시는 바로 그러한 이상향을 그리는 직접적 이유를 밝히고 있다는 점이 특색이다. 즉 “어찌하여 나에게서는 날개가 없을까요?”로 표현되는 자유의식의 상실의식이다. 이상향을 실천할 수 있는 자유의식의 상실이 이 시의 정조를 지배하고 있다. 날개가 있다면 이상향이라 할 수 있는 세계의 '園丁'이 되었다는 의지의 표명은 날개의 상실, 즉 자유의 상실에 대한 강한 슬픔을 함축한다.

그 점에서 초기 시를 관통하는 정서는 간절한 갈망, 또는 그것의 좌절에 따른 짙은 비애나 분노다.

푸른 웃음 얇게 흐르는 나지막한 하늘을  
학타고 멀리 멀리 갔었노라

숲길을 뒤돌아 언덕에 왔을 때 그것은 지낸날  
그것은 지낸날 꿈이었다고  
하늘에 떠도는 구름을 보며  
너는 그렇게 이야기 하드구나!

깨워지지 않을 꿈이라면

그 꿈에서 길이 살고 싶어라

-「아 그 꿈에서 살고 싶어라」 부분

어머니  
 황혼마저 어느 성좌로 떠나고  
 밤—  
 밤이 왔습니다  
 그 검고 무서운 밤이 또 왔습니다  
 태양이 가고  
 빛나는 모든 것이 가고  
 어둠은 아름다운 전설과 신화까지도 먹칠하였습니다  
 어머니  
 옛이야기나 하나 들려주세요  
 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 부분

첫 번째 시 「아 그 꿈에서 살고 싶어라」는 역사 현실을 초월해서 살고 싶은 시인의 원망을 담아내고 있다. 이 또한 유토피아 의식의 한 표현이다. 이 꿈은 낮에 꾸는 몽상과 같은 것으로서 프로이트에 따르면 “행복한 사람들은 몽상을 좇지 않는다. 오직 만족을 모르는 자들만이 몽상을 좇을지도 모른다. 충족되지 못한 욕망은 몽상을 움직이는 힘이고, 모든 몽상은 욕망의 완결이며 동시에 만족을 주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보정(補整)이다.”<sup>15)</sup>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역사적 현실에 대한 보정 작용으로 나온 것이다. 이것을 신석정도 알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그러기에 우리가 공상하는 세계란 언제나 현실을 떠나서는 성립할 수 없는 것이다. 주어진 현실의 상황 속에 발붙이고 현실에 대한 불만과 갖고 싶어하는 현실을 공상의 세계에 설정해 보는 것이다. <중략> 인간이 祈求하고 의욕하는 것을 꿈으로 승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꿈의 底邊에는 항상 현실의 부조리에 대한 증오가 깔려야 할 것인데 말할 것도 없다. 이것이 예술가의 소중한 양심으로 통하는 길이기 때문이다.”<sup>16)</sup> 이 표현은 유토피아 시의 이중적 특성을 잘 설명하는 시인의 발언이다.

15) 프로이트(정장진 역),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열린 책들, 1996), p.86.

16) 신석정, 「시정신과 참여의 방향」 《문학사상》 창간호(1972년 10월), p.241.

두 번째의 시 「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는 그러한 꿈이 좌절되었을 때 가지는 분노의 표현이다. 밤으로 상징되는 일본 제국주의의 과시즘에 대한 역사적 자아로서 가지는 감정은 “이 밤이 너무나 길지 않습니까?”에서 보듯 저항적 감정이다. 부당하게 억압된 심리를 하소연하는 형식을 통해 표출하고 있지만 그것은 역사적 불합리성에 대한 인식과 극복 방안에 대한 탐색을 함축한다. 이러한 표현은 다른 시 “밤이 이대로 억만 년이야 갈리랴구……”(「고운 心臟」)에서도 나타난다.

그 점에서 신석정의 초기시는 유토피아 의식이 가득 찬 시다. 이것은 그의 시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해방의 세계가 돌아왔을 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고 할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러나 팔십노령의 피카소가 공산당에 입당하였다는 이즈막에 있어— 이 제 석정의 가슴에는 다시 푸른 꿈이 깃드리기 시작하였고, 그에게는 푸른 산, 흰구름만이 그의 시가 아니요, 조선의 세계의 인만도 또한 그의 시가 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믿는 나의 심사는 과연 부질없는 꿈일 것인가?

—김아, 「『술픈 목가』에 바치는 글」 부분

“인제 어디로 가겠느냐?”구요. 성한 피가 내 혈관을 도는 한, ‘새벽’과 ‘아침’과 대담한 ‘대낮’을 찾아, 끝끝내 한 송이 해바라기로 다시 피여보리라. 그것은 어느 가난한 마을 울 옆이래도 좋고, 나지막한 산 기슭이라도 좋겠습니다.(『술픈 목가』의 발문)

위의 예문은 해방 직후 신석정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공산주의자 김아의 글이다. 이 글에서 김아는 신석정에게 있는 이러한 유토피아적의식의 단초를 이미 그의 앞 시에서부터 보아왔다는 증언을 해주고 있다. 그 아래 예문은 신석정 본인이 쓴 글인데 역시 현실지향적 사회의식을 표방하고 있다. 이 글에서 말하는 새벽, 아침, 대낮이 상징하는 것은 정의롭고 자유로운 세계의 건설을 뜻할 것이다. 이 점에 비추어 해방 후 좌우익의 혼란 속에서 완전한 자주민족국가 건설의 염원을 표현한 “다시 우리러보는 이 하늘에/겨울밤 달이 아직 차거나/오는 봄엔 분수처럼 쏟아지는 태양을 안고/그 어느 언덕 꽃덤불에 아늑히 안겨보리라.”(「꽃덤불」)의 시도 이해될 수 있다. 즉 하나의 유토피아 상으로 제시되는 ‘꽃덤불’은 바로 대담한 대낮의 사상이 발현된 공간이다. 이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하나의 실천적 전망을 제시한 것에 해당



한 것이다.

이러한 역사의식과 실천의지는 해방 후의 역사적 현실을 대하여 보다 신석정으로 하여금 급진적 비판시를 쓰도록 하게 한 이유가 되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은 시로 충분히 알 수 있다.

능선을 타고 내려오면 전쟁이 뿌리고 간 고운 피플 머금은 파란 도라지꽃들의  
會話가 잦은데, 파도처럼 달려드는 바람소리 말을 달려 간 골짜기니마  
다 하얀 欄檻가 동굴 같은 눈 언저리에 눈부신 태양을 받아들이곤 이슬같이  
수떨이고 있다.

축제도 끝났다.

가면 무도회도 끝났다.

인젠 모두 우리들의 배물은 검은 夜會服을 벗어던져도 좋다.

<중략>

산이여!

너는 그러기에 오늘도

통곡을 생각하는 슬픔 속에 서 있는가?

통곡하라!

목놓아 어서 통곡하라.

<내일>!

<내일>의 축제를 위하여!

-「祝祭 -산이여痛哭하라」 부분

이 시는 그의 후기 시집이라 할 수 있는 『산의 서곡』(1967년)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이 시의 내용은 바로 개발독제로 자유를 억압하는 박정희 군사정권에 대한 신랄한 풍자다. 군부독제의 행태를 ‘가면무도회’로 비유하고 그러한 현실을 벗어나기 위해 “인젠 모두 우리들의 배물은 검은 夜會服을 벗어던져도 좋다”고 격렬한 행동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것을 다시 역사의 증인으로서 ‘산’을 등장시켜 “목놓아 어서 통곡하라./<내일>!/<내일>의 축제를 위하여!”라고 미래지향적 선언을 한다. 여기서 보이는 통곡의 의미는 이때까지의 나약하고 부정적 자세를 일소하고 보다 미래지향적 차원에서 자신의 현실적 삶의 자세를 변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본다면 이 시는 4·19 혁명을 겪은 세대로서 ‘혁명’의 잠재성을 노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점에서 신석정의 시는 후기 시로 갈수록 유토피아 의식의 구체적 내용을 직접적 형태로 표출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 결과 신석정은 집권자로부터 두세 번의 탄압을 받게 되었는데(「단식의 노래」, 「서울 1969년 5월 어느날」 등) 이는 목가적 전원시인으로만 한정해서 그를 바라볼 때는 도저히 해명될 수 없는 성질의 것이다. 즉 유토피아 의식의 구체적 발현으로 신석정 후기 시를 바라보았을 때 그의 시적 변화 양상이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는 설명을 내릴 수 있는 것이다.

## 2-2. 모성 지향의식과 생태 인식

신석정 시의 유토피아 의식의 중요한 또 하나의 표지는 바로 모성적 공간의 창출이다. 「그 먼 나라를 알고십니까」에서도 ‘어머니’가 등장하고 있듯이 그의 시 상당수가 여성적 존재로서 어머니를 비롯 님, 당신, 한이(딸) 등의 여성 존재를 등장시키고 있다. 이 어머니에 대한 의미는 신석정 시를 연구한 사람들은 대부분 언급했다고 할 수 있다. 대다수 연구자들의 공통된 논의는 어머니가 바로 이상향에의 인도자로서 구원자의 상징, 즉 메시아적 존재로 주목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틀린 것은 아니다. 그러나 모성(여성) 지향이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다음 한 편의 시를 통해 그 점을 추적해보자.

어머니  
 먼 하늘 붉은 날에 비낀 숲길에는  
 돌아가는 사람들의  
 꿈같은 그림자 어지럽고  
 흰 모래 언덕에 속삭이던 물결도  
 소물이 피리에 귀기울여 고요한데  
 저녁바람은 그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언덕의 풀잎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내가 어머니의 무릎에 잠이 들 때  
 저 바람이 숲을 찾아가서  
 작은 산새의 한없이 깊은  
 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

-「그 꿈을 깨우면 어떻게 할까요?」 부분

이 시는 앞에서 보았던 유토피아 의식을 가진 시로 충분히 불 만한 내용을 가지고 있다. 이 시에 제시된 흰 모래 언덕, 속삭이던 물결, 고개를 끄덕이는 풀잎 등의 공간은 평화와 안정이 깃든 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평화의 정서를 더욱 강력히 환기하는 것은 어머니의 존재성에 의해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어머니의 무릎에 잠이 들 때”의 표현은 어떠한 근심이나 침입으로부터 보호된 평화로운 공간임을 나타낸다. 그 점에서 어머니는 나의 정신적 물질적 후원자이자 보호자다. 그리고 다른 시로 볼 때 이러한 평화로운 공간으로 이동이 가능하게끔 도와주는 존재가 어머니인 만큼 어머니는 절대적 귀의처를 상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어머니를 비롯한 여성적 존재의 부각은 신석정이 그리고 있는 유토피아의 특성을 암시하는 소재다. 여성적 존재는 포용과 사랑으로 생명을 길러내는 일을 일상적 현실에서 맡고 있다. 그 점이, 즉 여성성의 표출이 계급주의적 파시즘의 세계를 극복할 대안적 성격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sup>17)</sup>. 즉 신석정이 볼 때 당대의 역사현실이 가지는 부정성은 남성적 세계관의 대립에서 오는 것이란 인식을 가져볼 수 있다. 이러한 남성적 세계관은 근대적 이념의 특징이기도 하다. 노동과 생산을 중시하는 부르주아적 세계관은 남성 위주의 이데올로기를 유포시켰고 그 결과 내립과 경쟁을 통한 투쟁 사회의 모습이 근대사회가 되고 말았다. 그 점에서 근대사회의 극복으로서 여성사회의 출현을 신석정은 본능적으로 제기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이 점은 하나의 유토피아적 세계상이라 할 수 있는 공산주의를 설명하는 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사실 공산주의는 사랑·평화·협동을 강조하는 <여성적>인 이미지로 특징지어져야 할 목가적인 세계다. 또한 이 여성적 이미지는 모든 시대의 유토피아니즘이 공유하는 공통적인 이미지이기도 하다. 이러한 까닭에 에른스트 블로흐도 마르크스의 공산주의를 <황금시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영원히 여성적인 것>으로 이름하지 않았던가”<sup>18)</sup>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유토피아적 세계는 분열과 대립이 사라진 상태를 의미하기 때문에 여

17) 여성성의 탈근대적 의미에 대해서는 줄고, 『서정의 길, 인식의 길, 화해의 길 -90년대 여성시』 『서정의 귀환』(좋은날, 2000)을 참조할 것.

18) 임철규, 앞의 책, p.42.

성적 이미지로 가득 차게 마련이다. 신석정 또한 이러한 유토피아 상에 충실함으로써 여성적 이미지의 창출과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가령 다음과 같은 시가 그렇다.

란이와 내가  
 푸른 바다를 향하고 구름이 자꾸만 놓아가는  
 붉은 산호와 흰 대리석 층층계를 거닐며  
 풀오리처럼 떠다니는 청자기빛 섬을 어루만질 때  
 떨어는 심장같이 자즈러지게 훑날리는 느티나무 잎새가  
 란이의 머리카락에 매달리는 것을 나는 보았다  
 란이와 나는  
 역시 느티나무 아래에 말없이 앉아서  
 바다를 바라다보는 순하다순한 작은 짐승이었다

-「작은 짐승」 부분

란이라는 딸과 앉아 바다를 바라보는 시적 화자의 의식 세계는 순수와 평화로 가득 차 있다. 여성적 존재로 둘러싼 세계는 아름다움과 기쁨이 통일된 것인 만큼 시적 화자 역시 “순하다순한 작은 짐승”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자연과의 합일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성적 존재가 환기하는 평화로운 삶의 전형이다.

그 점에서 신석정의 시에 나타나는 모성(여성) 지향성은 바로 근대적 삶에 대한 비판이라고 볼 수 있다. 근대적 삶이란 위계화와 (이항)대립, 도구화와 기계화로 얼룩진 비인간화의 시기로 볼 수 있다. 실제 신석정이 살았던 일제강점기나 6·26전쟁, 그리고 5·16 군사 쿠데타로 이어진 역사의 현실은 매우 타자의 삶을 위축시켰던 시대였다. 따라서 서열화와 대립으로 집착된 근대적 삶의 살풍경을 타자의 대표적 존재인 여성을 복원시킴으로써 조화적 세계, 평등적 세계의 유토피아로 구성해보고자 했던 것이 신석정의 시적 의도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한 발상은 곧바로 생태주의적 자연 인식과 결합된다. 이미 생태주의의 바탕이 되는 사상이 동양의 노장(老莊) 사상이라 할 때 신석정이 즐겨 읽고 시적 내용으로 형상화하고자 했던 노장과 도연명의 사상은 바로 근대적 삶의 비판 테제로서 신석정에게 부각된다. 그리고 노자가 제시하는 도의 상징적 실

제는 대체로 여성적 이미지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해 볼 만한 사항이다. 노자는 늘 ‘도’라는 것의 기본 범주를 모성 의식과 관련시키고 있다.

혼돈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으니  
 하늘과 땅보다 먼저 생겼다.  
 적적하여 소리도 없고  
 회미하여 모양도 없으나  
 어느 것이나 기대지 않고 어느 것으로도 변하지 않는다.  
 두루 행하되 감시도 취지 없으니  
 천하의 어머니라고 할 만하다.  
 네 그 이름을 모르나  
 도(道)라고나 하자.

-「도덕경」제15장 전문

여기에서 보면 도를 어머니에 빗대고 있다. 노자는 또 다른 데에서 “암컷은 /늘 고요한 것으로써 수컷을 이긴다”(「도덕경」 제61장)고 하는 등 여성과 모성 이미지를 자연 이미지와 결부시키고 있다. 물을 도의 실체로 보는 것 역시 물을 음(陰)의 상징체로 보는 주음사상(主陰思想)의 반영이다.<sup>19)</sup> 이로 볼 때 신석정에게 여성적 이미지와 자연적 이미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으면서 유토피아 상의 구체적 요소들로 등장한다.

崇高한 山의 Esprit는  
 모두 이 山頂에 集約되어 있고  
 象徵되어 있다.  
 —하여  
 神은 거기에 내려오고  
 사람은 거기 오른다.

3.

<더덕><오름><짚> 서리고 얽힌 넝쿨 휘휘 감긴 바위 서리, 그저 얼쩡만 스쳐도 물씬 풍기는 향기, 키보담 높게 솟은 <고사리><고비><관중> 群落到 <마타리> 끼워 어쩔 겨누는 덩굴, 짐승들 쉬어간 폭작한 자릴 지날 때마다 무심코 나도 덩글고 싶은 산골엔 혈벗고 굶주린 자취가 없다.

19) 잔 스추앙(안동준·김영수 역), 『여성과 도교』(여강, 1993), p.107.

<중략>

7

이서 보내야 할 얼룩진 오늘과, 탄생하는 내일의 생명을 구가할 꿈을 의  
논하는 꽃보라처럼 난만한 露宿. 벌써 새근새근 산새처럼 잠이 든 벗도 있  
다.

-「靑異山」 부분

이 시는 후기 시라 할 수 있는 『산의 서곡』에 실려 있는 작품이다. 이 시에  
서 산은 단순히 인간에게 정복의 대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비  
의(秘意)를 간직한 숭엄한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시적 화자는 산에  
가는 것이 바로 신성성을 습득하는 것, 즉 인간의 물질성이나 소외의식을 떨  
쳐버릴 수 있는 이상적 공간으로 산을 바라본다. 그것은 3연에서 산 속의 풀  
과 나무들은 바로 평등과 자유로 유토피아적 세계를 구현하고 있음을 드러내  
고 있는 데서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산골엔 헐벗고 굶주린 자취가 없다”  
는 유토피아적 인식 아래 역사현실의 ‘얼룩진 오늘과 탄생하는 내일의 생명’  
을 구가해보는 데서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신석정에게 자연은 인간마저 하나의 동등한 대상으로 보는 자연중  
심적 자연관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근대적 자연관이 도구적 자연관  
이었다면 전근대, 혹은 탈근대의 대안적 자연관으로서 생명적 자연관이라 부  
를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갑자기 대가 되어버린다.

과란 대에 섞인  
나를 나는 잊어버린 채  
대  
대랑 산다.

-「靑」 부분

대와 일체감을 형성하는 시적 화자에게 자연의 공간과 자연적 삶의 방식은  
하나의 이상적 삶의 방식이다. 그는 부정적 근대성이 판치는 역사 현실로부터  
초월하여 자연 속의 삶을 추구했던 것이다. 이것을 두고 오늘날 우리들이 도

피적 자세라 할 수 없다. 이것은 오늘의 끔직한 근대적 삶을 경험한 우리들로서 하나의 근대적 삶을 극복해나가는 실천적이면서 대안적 삶의 태도라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전기적 자료로 볼 때 신석정만의 특징은 바로 전원(田園)에 돌아가 농사짓고 그의 평생을 살았다는 점이다. 그것은 그가 도회 문명이나 근대적 삶에 대한 적응능력이 없어서라기보다 근대적 삶이 가지는 도구화 기계화의 소외적 삶을 원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탐색 끝에 의식적으로 선택한 삶이라 할 것이다. 그것은 특히 그가 도연명과 노장, 그리고 타고르 등의 동양 사상가들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과 무관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점에서 신석정 시에 나타나는 생태적 자연관은 바로 기술로 근대적 기획을 달성하고자 하는 테크노피아에 대립한 에코토피아(생태학적 유토피아)의 세계를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 3. 결 론

신석정은 단순히 현실도피적 서정시인이 아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글 “일전 어느 신문에선가 이동주 시인은 시월평에서 「使道行傳」(박두진)을 다루면서 “현실참여는 행동으로 하고 시는 순수서정시로 써야 한다”는 그 시인 나름의 지론을 써놓은 대문을 읽었는데 「使道行傳」은 바로 시인 박두진의 행동이 아니고 무엇일까? 시인에게 있어서의 행동이란 바로 작품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순수서정시를 쓰건 참여시를 쓰건 그것은 그 시인의 가장 구체화된 행동임에 틀림없다. <중략> 「使道行傳」이 참여시라면 그것도 바로 박두진이 참여하는 행동인 것은 자명한 일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참여시를 蛇蝎視하는 저의에서 나온 경솔한 독단이 아닐는지……. 나는 서정시를 반대하자는 것도 아니요,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 그러나 <순수서정시>란 전연 참여성을 제거한 吟風弄月을 의미한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오늘날 시인들은 불행하게도 음풍농월로 만족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sup>20)</sup>는 그가 어떻게 시를 써야 하고 바라보아야 할지를

알려주는 내용이다. 이것에 따르면 시는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본은 바로 그의 일생을 관통하는 유토피아 의식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초기시와 중·후기시에 줄기차게 나오는 이상향의 심상은 바로 당대에 파시즘적 압력을 보이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우회적 비판의 표현임을 알 수 있었다. 또 그 반대상으로 표출된 유토피아 이미지는 여성과 모성이 둘러싼 화해와 평화가 깃든 공간으로서 오늘의 우리 관점에서 볼 때 생태주의적 인식을 담은 작품이었다. 때문에 그의 유토피아는 현실적 측면에서는 폭력과 기계화를 반대하는 의미로서 그리고 미학적 측면에서는 자연과의 일치를 통한 관조의 세계로 나아가고자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로 볼 때 신석정 시의 유토피아 의식은 그의 전 작품을 지배하는 가장 원초적이고 본질적인 구성원리임을 확인할 수 있겠다.

## 참고문헌

- 김기림, 『시론』, 백양당, 1947  
 김경복, 『서정의 귀환』, 좋은날, 2000  
 김영환, 『르네상스의 유토피아 사상』, 탐구당, 1988  
 문예미학회, 『유토피아』, 문예미학사, 2000  
 백철, 『한국신문학발달사』, 박영사, 1975  
 서정주, 『한국의 현대시』, 일지사, 1965  
 신석정, 「시정신과 참여의 방향」 《문학사상》 창간호, 1972. 10  
 오택근, 「신석정론」 《시문학》 117호, 1981. 4  
 윤여탁, 『신석정』, 건국대출판부, 2000  
 이진청, 『한국전원시 연구』, 문학세계사, 1986  
 임철규, 『왜 유토피아인가』, 민음사, 1994  
 정태용, 「신석정론」 《현대문학》, 1967. 3  
 허소라, 「신석정 연구」 『한국언어문학』, 형설출판사, 1976

20) 신석정, 「시정신과 참여의 방향」 《문학사상》 창간호(1972년 10월), pp.238-239 .



- 칼 만하임(임석진 역), 『이데올로기와 유토피아』, 청하출판사, 1991  
마르틴 부버(남정길 역), 『유토피아 사회주의』, 현대사상사, 1993  
프로이트(정장진 역), 『창조적인 작가와 몽상』, 열린 책들, 1996  
잔 스추앙(안동준·김영수 역), 『여성과 도교』, 여강, 1993

Abstract

## A Study on the Utopian Consciousness of Shin, Seok-Jeong's Poetry

Kim Kyung-Bok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features of the utopian consciousness in Shin, Seok-Jeong's poems. It can be shown that the features of his utopian consciousness express themselves as two forms.

The first of them is the manifestation of opposite imagery as a critical consciousness on historical reality. If we see the images of his representative work, "Distant Country," they take on some forms, such as freedom and peace, the land promising materialistic fruitfulness, but at the same time the form of utopian image invisible in historical reality. The utopian image of "Distant Country" have to be regarded as his conscious projection for superseding the lack of the real. In a sense, his poem is an indirect criticism to the period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for it represents his hope that he wants to escape from the fascist reality and live in his own world.

The second is the creation of a maternal space through the orientational consciousness to maternity. This space is expressed as that of peace and stability, such as white sand, hill, murmuring waves, leaves of nodding grass and so on.

In particular, this space has meaning to bring up new life with tolerance and love by staging the female beings including mother. In that sense, the femininity in his poems is seen to take on an alternative form to cope with the fascist world of imperialism. It also combines with the ecological consciousness of nature in that sense that it tends to advance toward the harmony and coexistence.